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이경임^{1*} · 정경순²

^{1*}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²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Lee keyoungim, RN, Ph.D^{1*} · Jeong Gyengsun, RN, Ph.D²

^{1*}Dep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²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 A total of 277 studen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from 1 May 2016 to 31 May 2016. Data analysis included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18.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mpus life satisfac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r=.316$, $p=.001$); between campus lif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r=.256$, $p=.001$); and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r=.469$, $p=.001$). Career attitude maturity had the highest R-squared value of 10% ($\beta=.22$) for campus life satisfaction, while peer relationships had an R-squared value of 2% ($\beta=-.18$), residence type of 2% ($\beta=.14$), and self-efficacy of 1% ($\beta=.14$), for a total R-squared value of 15%.

Discussion: Given these results, individual counseling is recommended to improve campus life satisfaction by helping college students to acquire the skills to foster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fficacy, and a positive view of their future vocation. Furthermore, it is essential for an educational environment to support students to ensure that after graduation they become fully-fledged members of society with a sense of pride in their profession.

Key Words: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campus life satisfaction

*교신저자 :이경임 deresa1998@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준비 하는 시기이다. 대학생은 발달 단계 상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며, 직업을 선택 하는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정효주와 정향인, 2012; 박현태, 2014)). 그러나 간호 대학생은 대학에 입학하는 동시에 직업이 결정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간호 대학생은 전문 지식 습득 외에도 임상실습이라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적 노출을 일찍 경험하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박현주와 장인순, 2010). 또한 간호 대학생은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졸업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Liaschenko & Peter, 2004).

그러나 간호 대학생은 전공을 배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양의 전공과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두려움과 부담감, 심리적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간호 대학생이 전공을 선택한 동기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자발적인 선택보다 사회와 타협하고, 타인의 권유로 선택하여 학업 스트레스가 높으며, 전공 및 대학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박보영과 심옥수, 2016; 김유정 등, 2016). 이러한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을 선택한 간호 대학생은 학업의 흥미를 상실하고 대학생활의 부적응으로 대학생활의 만족도도 낮았다(이지은과 곽혜원, 2016).

대학생활에 만족도가 낮은 간호 대학생은 학업 스트레스와 휴학, 자퇴 및 전과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서병우, 2013), 외적 요인에 의해 진로를 결정한 경우 진로 의식이 발달하지 못하여 대학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민배와 문승태, 2004; Tak & Lee, 2003).

간호 대학생은 자신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로에 대한 성숙된 의식을 가질 때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졸업 후에도 올바른 직업관과 자신감을 가지고 간호업무의 사명감을 다할 것이다(이윤신 등, 2014; 윤순영과 김민숙, 2014; 조정애와 김정선, 2016). 따

라서 간호 대학생이 대학생활을 적응하는데, 대학생활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며, 수행 성취,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각성 상태를 말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업에 집중하고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를 높이며,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진로태도성숙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양윤경 등, 2014; 양선희와 심인옥, 2016; 고경필과 심미경, 2014).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 시기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동기 요인이므로,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로태도성숙도는 진로 발달 단계에서 발달과업을 이루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처하는 정도를 말한다(안미경과 유금란, 2013). 이기학과 한종철(1997)은 진로선택에서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요인을 진로태도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였다.

현재 간호 대학생은 졸업 후 진로 선택에서 병원, 병원 외 취업과 직업의 안정성, 장래 발전 가능성, 연봉 수준, 개인 능력 발휘가능성, 사회적 명성, 직장 근무 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와 대학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이경희와 김남희, 2012; 조의영 등, 2016; 박수경과 조경미, 2016).

진로태도성숙도는 이미 전공이 정해진 간호 대학생이라도 진로 상담을 통해서 진로태도성숙도를 높여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태도성숙도가 간호 대학생활의 만족도에 관계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셀프리더십,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자기 주도 학습 등의 변수로 연구가 되어왔으나(이윤신 등, 2014; 김유정 등, 2016),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과중한 학업과 임상 실습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졸업 후에도 올바른 직업관을 가진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와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시 2개교에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다. 설문 응답 시간은 20분~25분 가량 소요 되었다. 설문지는 회수 된 것 중에서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 한 27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도구를 김아영(199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고정필과 심미영(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5$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0.74$ 이었다.

2) 진로태도성숙도

진로태도성숙도는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정희영과 박옥련(2009)이 대학생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총 2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희영과 박옥련(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5$ 이었다.

3)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는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의 “대학교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와 한은성(2008)의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대학생활, 대학 교육의 질, 대학 행정·복지 서비스만족도 등의 세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은성(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7$ 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분석은 SPSS 18.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

성은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의 비교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의 각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중 남자는 29명

(10.5 %)이었고, 여자는 248명(89.5 %)이었다. 연령 범위는 18세~52세였으며, 20세 이하는 149명(53.8 %), 21~30세는 103명(37.2 %), 31~40세는 12명(4.3 %), 41세 이상은 13명(4.7 %)이었다. 학년에서 1학년은 95명(34.3 %), 2학년은 86명(31 %), 3학년은 69명(24.9 %), 4학년은 27명(9.7 %)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106명(38.3 %), 종교가 없는 경우는 171명(61.7 %)이었다. 거주형태에서 부모님과 함께인 경우는 189명(68.2 %), 혼자인 경우는 26명(9.4 %), 친구와 함께인 경우는 15명(5.4 %), 그 외 기타는 47명(17.0 %)이었다. 학과 선택 동기에서 고교성적 고려한 경우는 13명(4.7 %), 적성과 맞아서인 경우는 79명(28.5 %),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을 고려한 경우는 104명(37.5 %),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로 학과 선택한 경우는 55명(19.9 %), 기타는 26명(9.4 %)이었다.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는 146명(52.7 %), 보통 이하인 경우는 131명(47.3 %)이었다(표 1).

표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N=277)

특성	구분	n	%
성별	남	29	10.5
	여	248	89.5
연령	20세 이하	149	53.8
	21~30세	103	37.2
	31~40세	12	4.3
	41세 이상	13	4.7
학년	1학년	95	34.3
	2학년	86	31
	3학년	69	24.9
	4학년	27	9.7
종교	있다	106	38.3
	없다	171	61.7
거주형태	부모님	189	68.2
	혼자	26	9.4
	친구	15	5.4
	기타	47	17.0
학과선택동기	고교성적 고려	13	4.7
	적성과 맞아서	79	28.5
	졸업 후 높은 취업률	104	37.5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	55	19.9
	기타	26	9.4
교우관계	좋은 편	146	52.7
	보통이하	131	47.3

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총점 76.05±7.47점(평균

3.16 ±0.30점)이었고, 진로태도성숙도는 총점 88.42±11.24 점(평균 3.38±0.36점)이었으며, 대학생활만족도는 총점 56.56± 8.00점(평균 3.33±0.47점)이었다(표 2).

표 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N=277)

변수	M±SD	범위
자기효능감	3.16±0.30	1~5
진로태도성숙도	3.38±0.36	1~5
대학생활만족도	3.33±0.47	1~5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 검증에서 자기효능감은 학년($F=3.90, 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2학년보다 3학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진로태도성숙도는 교우관계($t=2.83,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우관계가 좋은($3.43±0.35$) 경우가 보통이하($3.31±0.37$)인 경우보다 진로태도성숙도 점수가 높았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연령($F=3.07, p=.028$)과 교우관계($t=3.54,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만족도 점수는 연령에서 20세 이하가 $3.40±0.46$ 점이었고, 21세~30세는 $3.25±0.48$ 점이었고, 31세~40세는 $3.37±0.45$ 점이었고, 41세 이상은 $3.09±0.39$ 점이었다.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 $3.42±0.46$ 점이었고, 보통이하인 경우 $3.22±0.46$ 점이었다(표 3).

4.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만족도는 진로태도성숙도($r=.316, p=.001$)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

다. 또한 대학생활만족도는 자기효능감($r=.256, P=.001$)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도($r=.469, p=.001$)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표 4).

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일반적 특성을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명목적으로 측정된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0.76~0.99로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1.32로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외하였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증한 Durbin-watson통계량이 1.75로 오차항간에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검정할 수 있어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F=4.96, p=.027$).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해 진로태도성숙도가 9.6 %($\beta=.22$)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고, 교우관계는 2.2 %($\beta=.18$), 거주형태는 1.6 %($\beta=.14$), 자기효능감은 1.2 %($\beta=.14$)로 설명력을 나타내어 총 14.6 %의 설명력을 나타냈다(표 5).

표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 (N=277)

특성	구분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			
		M±SD	t/F	p	M±SD	t/F	p	M±SD	t/F	p	
성별	남	3.07±0.34	1.74	.083	3.27±0.34	-1.7	.079	3.28±0.60	-0.48	.653	
	여	3.17±0.29			3.39±0.36			3.33±0.45			
연령	20세이하	3.14±0.32	1.21	.305	3.39±0.38	1.49	.217	3.40±0.46	3.07	.028	
	21~30세	3.17±0.29			3.35±0.35			3.25±0.48			
	31~40세	3.30±0.30			3.47±0.26			3.37±0.45			
	41세이상	3.17±0.21			3.21±0.30			3.09±0.39			
학년	1학년a	3.18±0.26	3.90	.009	3.44±0.39	1.74	.158	3.34±0.47	2.43	.065	
	2학년b	3.10±0.34			3.33±0.32			3.28±0.43			
	3학년c	3.25±0.28			b<c			3.37±0.35			3.43±0.50
	4학년d	3.09±0.33			3.30±0.40			3.17±0.49			
종교	있다	3.16±0.27	0.06	.952	3.38±0.37	0.21	.833	3.30±0.46	-0.57	.568	
	없다	3.16±0.32			3.37±0.36			3.34±0.48			
거주형태	부모님	3.13±0.31	2.62	.051	3.36±0.37	0.87	.456	3.29±0.47	1.61	.187	
	혼자	3.30±0.25			3.40±0.43			3.33±0.51			
	친구	3.21±0.37			3.51±0.23			3.39±0.41			
	기타	3.19±0.25			3.38±0.33			3.45±0.46			
학과선택동기	고교성적 고려	3.15±0.37	1.18	.319	3.39±0.31	1.34	.256	3.27±0.57	2.06	.086	
	적성과 맞아서	3.18±0.25			3.41±0.38			3.40±0.47			
	졸업 후 높은 취업률	3.18±0.32			3.41±0.30			3.30±0.46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	3.15±0.35			3.33±0.45			3.38±0.47			
	기타	3.05±0.27			3.25±0.34			3.12±0.45			
교우관계	좋은 편	3.18±0.32	0.75	.456	3.43±0.35	2.83	.005	3.42±0.46	3.54	.000	
	보통이하	3.15±0.29			3.31±0.37			3.22±0.46			

a,b,c,d: scheffe test

표 4.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N=277)

특성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1	.469(.001)	.256(.001)
진로태도성숙도	.469(.001)	1	.316(.001)
대학생활만족도	.256(.001)	.316(.001)	1

표 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77)

변수	B	SD	β	t	p	Adj. R ²
(상수)	1.735	0.31		5.60	.000	
진로태도성숙도	0.28	0.83	.22	3.42	.001	.096
교우관계	-0.17	0.05	-.18	-3.18	.002	.022
거주형태	0.17	0.07	.14	2.41	.017	.016
자기효능감	0.22	0.10	.14	2.23	.027	.012

Adj. R²=.146, F=4.96, p=.027

Dummy variable(교우관계(좋은), 거주형태(부모, 혼자, 친구)=0)

IV. 고 찰

본 연구는 B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학과를 선택하는 동기는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았다. 이는 양선희와 심인옥(2016)과 조의영 등(2016)의 연구에서 전공 선택 시 적성과 흥미보다 부모의 권유와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것이 높게 나와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간호 대학생은 높은 취업률로 간호학을 선택하였으나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으로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보영과 심옥수, 2016). 간호 대학생은 이미 결정된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졸업 후 취업을 하다 보니 올바른 직업관이나 전문직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 결과 5점 만점에 3.16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이는 최연희와 정창숙(2015)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3학년보다 2학년에서 낮게 나타났다. 왕희정 등(2016)의 연구에서는 4학년이 높았으며, 2·3학년은 낮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곽혜원과 황성우, 2017), 2학년 때부터 전공과목을 시작하면서 학업의 달성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이윤신 등, 2014),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각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학년별로 다양한 측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기효능감 증진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태도성숙도는 본 연구 결과 5점 만점에 3.38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수정(2013)의 연구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용준과 박준성(201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간호 대학생은 이미 전공이 정해져 있어 졸업 후에 취업이 결정되어져 있으나,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하여 타과 학생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도는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이 높았다. 간호 대학생은 친구에게 어떤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기꺼이 수용해주며, 대화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구현영과 박현숙, 2005)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인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본 연구 결과 5점 만점에 3.33점으로 보통의 수준이었으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소영(2013)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는 20세 이하와 30대에서 높았으며,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높았다. 전미애와 김정모(2012)는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에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대인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한수정, 2013; 이윤신 등, 2014; 소용준과 박준성, 2016). 따라서 대학생활 만족도는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태도성숙도가 10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우관계, 거주형태, 자기효능감 순으로 총 15 % 설명력이 있었다. 이윤신 등(2014)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변수로 26.8 % 설명하고 있었고, 전미애와 김정모(201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성 특성의 긍정성과 대인관계 역량 부족, 성실성, 진로정체감 부족, 경제적 자원부족으로 40 % 설명하고 있어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윤신 등, 2014; 조정애와 김정선, 2016). 그러므로 개인 상담을 통한 직업관,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으로 성장

하여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졸업 후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겠다.

결론적으로 간호 대학생은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으로 개별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간호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대인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제공 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와 대학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직업관을 가진 사회인이 될 수 있게 하고, 대학 생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와 대학생활만족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활만족도의 영향 요인으로 진로태도성숙도가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교우관계, 거주형태, 자기효능감 순이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은 졸업 후 진로가 정해져 있으나, 대학생활만족도에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간호 대학생은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로태도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간호 대학생이 진로태도성숙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를 포함한 교육 방안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를 강화하여 진로태도성숙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로태도성숙도의 다양한 예측요인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고경필, 심미영(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곽혜원, 황성우(2017).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비교-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과와 4년제 간호학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239-249.

구현영, 박현숙(2005). 간호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도와 관련 변인. *상담학연구*, 6(2), 373-385.

김민배, 문승태(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7(1), 92-105.

김소영(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도 관계에 대한 자아개념과 종교의 조절효과. *열린교육연구*, 21(1), 257-278.

김아영, 차정은(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51-64.

김아영(1997). 학구적 실태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김유정, 유하나, 박미정(2016).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0), 261-270.

박보영, 심옥수(2016).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삶의 질 영향요인. *학스바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811-830.

박수경, 조경미(2016). 간호대학생의 임상분야 진로선택의 유형과 관련요인.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2(1), 107-122.

박현주, 장인순(2010).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14-23.

박현태(2014).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3), 1576-1583.

서병우(2013). 대학생의 특성이 전공선택동기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3(2), 65-81.

- 소용준, 박준성(2016). 대학생 생활 적응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취업진로연구*, 6(4), 23-44.
- 안미경, 유금란(2013). 부모의 진로 및 자율성 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9), 73-95.
- 양선희, 심인옥(2016).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창의성, 자기효능감과 간호과정 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5), 612-622.
- 양윤경, 한금선, 배문혜 등(2014).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학업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연구*, 22(1), 23-33.
- 왕의정, 정선아, 박효은 등(2016).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 619-627.
- 이경희, 김남희(2012).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자료분석학회*, 14(2), 965-978.
- 이기학, 한종철(1997). 진로 태도 측정 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1), 219-255.
- 이윤신, 박성희, 김종경(2014).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 생활 만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229-240.
- 이지은, 곽혜원(2016).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조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 생활 적응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4(11), 527-537.
- 윤순영, 김민숙(2014).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간호윤리 가치관 관련성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363-372.
- 전미애, 김정모(2012). 대학생의 인성특성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대학생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0(1), 71-85.
- 정희영, 박옥련(2009).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의 관계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0(1), 35-49.
- 조의영, 김정애, 김지영 등(2016).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1), 35-43.
- 조정애, 김정선(2016).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4), 587-595.
- 정효주, 정향인(2012).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1(3), 188-196.
- 최연희, 정창숙(2015).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7), 4604-4613.
- 한수정(2013).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5(5), 559-566.
- 한은성(2008).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 Rev*, 84(2), 191-215.
- Liaschenko J, Peter E(2004). Nursing ethics and conceptualizations of nursing: Profession, practice and work. *J Adv Nurs*, 46(5), 488-495.
- Tak KM, Lee KH(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